자산운용보고서

운용기간 : 2025.02.23 ~ 2025.05.22

한화
글로벌헬스케어증권
자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 수익률 기준일 : 2025.05.22, 설정일자 : 2013.05.23

3개월	1년	설정이후
-0.54%	3.09%	71.88%

한화자산운용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검토필 B25-0370 (심의일:2025.06.24)

한화자산운용

▸ 펀드수익률

(기준일 : 2025.05.22, 단위 : %)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펀드	-0.54	1.25	3.09	13.42	22.46
비교지수 대비성과	1.46	1.42	1.93	1.95	5.93
비교지수	-2.00	-0.17	1.16	11.47	16.53

※ 비교지수(벤치마크) : KAP 종합채권지수 전기간 X 40% + MSCI World Healthcare Index (T-1) X 36% + [한화자산]KIS회사채A-이상(~5Y) X 20% + MMI_CALL X 4%
※ 상기 펀드의 투자실적은 펀드의 종류형별로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세운용보고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펀드의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 운용경과

[주식]

- 2~4월 헬스케어 섹터는 시장 변동성 장세 속에서 방어 프리미엄을 부여 받으며 안정적인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4월 초 주식시장 전반에 걸친 패닉 장세가 발생하자, 헬스케어 섹터는 방어섹터로서의 역할을 하며, 하락률이 IT 등 성장 섹터 대비 제한적이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관세 유예를 발표한 4월 8일 이후 시장 반등이 이어지며, 동 섹터 또한 시장 상승에 동참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투자자 관심도가 최근까지 하락률이 높았던 IT, 산업재 등으로 이어지며 타 섹터대비 다소 더딘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5월들어 헬스케어 섹터는 많은 악재를 소화하며, 변동성 확대 장세를 경험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하여 약값을 최대 90% 까지 인하할 것으로 밝히며, 의약품 관련 정책이 기존에 알려진 관세 부여 이후 약값 인하가 아니라 약값 인하 이후 관세 부여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졌습니다.
- 물론 위와 같은 약값 인하 정책은, 과거에도 시도되었지만, 법원 제동(행정절차법 위반, 입법권 침해) 사례가 있어 실현 가능성은 다소 모호합니다. 다만, 행정부에서 약값 인하를 공식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침에 따라, 헬스케어 섹터 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센티멘트가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 명력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게되는 업체는 PBM으로 불리우는 약가 관리 업체와 민간 보험사입니다. 트럼프는 "중간 유통상 제거(CUT OUT MIDDLE MAN)"를 강조하며, PBM 및 건강보험사 (United Health, CVS Health 등) 주가가 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특히 한때 시총 5000억달러를 돌파하며 헬스케어 섹터내 시총 2~3위권을 유지하였던 United Health 주가는 4월~5월에 걸쳐 -50% 이상큰 폭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약값 인하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대형제약사들의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대형 제약사 주가들도 하락세를 이어 갔습니다.
- 섹터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 속에서 동 펀드는 PBM/보험사 업종을 비중 축소로 대응 하였으며, 특히 United Health의 편입비는 BM대비 매우 큰 폭으로 축소하였습니다. 한편, Boston Scientific, Intuitive Surgical과 같이 관세, 약값 인하 여파에서 자유로워 상승 추세를 이어간 의료기기 업종은 BM대비 비중 확대로 대응하며,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최소화 하도록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주가 하락 여파를 피해가지 못한 대형제약사들 중에서도 비만치료제 부문에서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지니고 있는 일라이 릴리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최선도제약사인 애브비는 비중 확대로 대응하였으며, 경쟁력 저하로 시장 점유율 하락을 겪고 있는 노보노디스크와 자궁경부암 백신 판매 저조 등으로 인해 성장률이 정체 상태인 머크는 비중 축소로 대응하였습니다.

[채권]

3월 국내 채권시장은 펀더멘탈 부진 선반영으로 미국 금리 연동폭 작았으며 추가 인하 및 추경 가능성에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월 생산·소비·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는 일제히 감소하는 한편, 미국채 금리는 하락에도 불구하고 국고채 금리의 하락폭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되었던 만큼 박스권에 갇힌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후 정치적 이벤트 소화하는 가운데 환율 부담과 수도권 중심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 통화정책 제약요인까지 더해져 인하 기대감 후퇴 및 국고채 금리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4월에는 월초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로 외환시장 부담 경감되며 인하 기대감 유입. 이후 WGBI 편입 시점 지연 및 무역갈등 심화가 유발한 미국 금리 급등 과정에도 불구, 금월 외국인의 국고채 현물(10조원 이상)/선물(25조원 이상) 매수세 견고해 금리 하락세 유지하였습니다. 한편 내수 부양 과정에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12.2조원으로 확정되고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8.1조원으로 결정되었지만 금리 영향은 제한적으로, 월말로 갈수록 경기 악화 인식 커지며 국고 3년은 2.3%, 국고10년은

2.6% 부근에서 하단 형성하였습니다.

5월 국고채 금리는 통안 1년을 제외한 나머지 전구간 전월 대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중 간 90일간의 관세 유예 합의가 위험자산 선호를 일시적으로 자극했으나,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과 미국 감세 법안 통과로 인한 재정건전성 우려가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한국은행이 2025년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음에도, 수급 부담과 대외 불확실성이 시장에 더 크게 작용하며 전반적인 금리 수준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코리아밸류채권펀드의 경우 평가 기간 동안 135bp 수익률 달성하여, 벤치마크 대비 21bp 초과 성과를 시현하였으며, 성과는 이자수익에서 92%, 자본차익에서 8%로 캐리중심의 운용전략에 충실한 결과 시현하였습니다.

▸ESG 이행 현황

해당사항 없음

▸운용계획

[주식]

- 트럼프 대통령의 약값 인하 정책 외에도 주식시장 반등과 함께 시장 관심사가 IT, 산업재 등 경기 민감/성장 섹터로 옮겨가며, 헬스케어 섹터 부진이 4월중순~5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다만, 현재 일라이릴리, 애브비 등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주는 일부 대형 제약사들의 밸류에이션이 4년전 수치로 되돌아가며, 비만치료제(일라이릴리), 면역질환치료제(애브비) 비중 확대 전략을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펼치기에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총 1위인 일라이 릴리는 비만치료제 시장외이도, 비마약성 진통제 시장에도 진출하며, 매우 큰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값 인하 정책 불확실성을 대부분 반영한 현 레벨에서 대형 제약사 중 확고한 성장률을 보이는 종목들의 주가는 미래에 높은 기대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격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올해 관세 역풍에서 자유로워 매우 높은 밸류에이션을 부여받은 의료기기 업체 종목들의 경우 고평가 영역에 진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펀드는 비중 확대 편입비를 유지중인 의료기기 업종 비중을 일부 차익실현을 통해 축소하는 한편, 확실한 성장성이 보이는 대형 제약사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적극적인 리밸런싱을 통해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6월 국고채 금리는 단기적으로 상방 압력이 우세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연말로 갈수록 성장 모멘텀 둔화와 금리 인하 기대가 금리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대외 불확실성 및 국내 수급 이슈 등으로 금리상승 압력이 예상됩니다.

미 연준은 6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4월 의사록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된 점이 확인되어 시장 기대보다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6월 점도표 및 경제전망(SEP)의 변화는 향후 통화정책 전망을 재조정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실물경기 둔화가 중장기적으로 금리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투자와 민간소비의 부진, 순수출 기여도 축소 등 경기 회복의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여지를 지지하는 배경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재정 확대에 대한 기대와 이에 따른 국고채 공급 부담이 금리 하단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 특히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어 2차 추경과 내년도 예산안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공급 부담의 가능성. 기존 13.8조 원 규모의 추경 외에 실제 발행 규모가 확대될 경우, 수급 부담에 따른 단기 금리 상방 압력이 예상됩니다.

코리아밸류채권펀드의 경우 현재 크레딧 채권의 비중이 절대적이며, AA급 이상과 A급 이하의 종목이 펀드의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펀드의 자금 유입을 통하여 새로운 펀드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생긴 상황으로서 절대 금리 우위에 있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편입 예정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3년물 중심의 AA급 종목에 대한 비중을 현재보다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채권부문 펀드매니저 김영후]

펀드매니저 | 왕승묵

※ 상기 운용계획 중 예측자료는 투자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이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향후 투자 결과를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Contents

1. 펀드의 개요

2. 수익률 현황

3. 자산현황

4. 투자운용전문인력현황

5. 비용 현황

6. 투자자산매매내역

7. 동일(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현황

8. 주요 위험 현황 및 관리방안

9. 고유재산 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공지사항

*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습니다.
* 고객님이 가입하신 펀드는 모자형 구조로써 자산구성현황, 보유종목, 보수 및 비용 등의 정보는 고객님이 가입한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가 투자하고 있는 각 모펀드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의 자산운용회사인 [한화자산운용] 이 작성하여 신탁업자인 [한국씨티은행] 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KB증권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외 21개] 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 이 자산운용보고서의 내용은 펀드 전체에 관한 내용으로, 투자자계좌 상세 내역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계좌별 수익률 정보는 가입하신 판매회사의 HTS나 인터넷 뱅킹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각종 보고서 확인
한화자산운용 http://www.hanwhafund.com/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이메일 수령신청 : 가입하신 판매사에서 이메일 수령 신청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자산운용보고서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화자산운용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펀드의 종류, 설정일, 운용기간, 특징 등 펀드의 기본정보 사항입니다.

펀드 명칭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의 종류	투자신탁,증권펀드(혼합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위험등급	4등급(낮은위험)
고난도 펀드	해당하지 않음
최초설정일	2013.05.23
운용기간	2025.02.23 ~ 2025.05.22
존속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존속기간이 없음
레버리지(차입 등)한도	해당사항 없음
자산운용회사	한화자산운용
펀드재산보관회사	한국씨티은행
판매회사	당사 홈페이지 참고 (www.hanwhafund.com)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펀드특징	이 펀드는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모펀드와 헬스케어 관련 주식에 투자하는 모펀드의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종류(클래스)	금융투자협회코드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RP (퇴직연금)	B7787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 C-RPe (퇴직연금)	BU668

▶ 펀드구성 이 펀드가 투자하고 있는 모펀드의 투자비중입니다.

펀드명	비중(%)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 모투자신탁(채권)	43.93
한화코리아토탈본드증권 모투자신탁(채권)	26.97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 모투자신탁(주식)	16.64
한화내일받는단기국공채증권 모투자신탁(채권)	12.46

※ 상기 표는 현재 투자자가 가입하고 있는 자펀드 만을 대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펀드 자산현황을 100으로 가정하였을 때 각 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 재산현황 펀드의 당기말 및 전기말 재산현황과 기준가격 현황입니다.

(단위: 백만원, 백만좌, %)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자산 총액 (A)	35,532	34,955	-1.62
부채 총액 (B)	225	125	-44.41
순자산 총액 (C=A-B)	35,307	34,830	-1.35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34,063	33,787	-0.81
기준가격 (E=C/D*1000)	1,036.51	1,030.88	-0.54
종류(Class)별 현황			
종류 C-RP	1,027.25	1,018.68	-0.83
종류 C-RPe	1,030.03	1,022.34	-0.75

※ 자산, 부채, 순자산은 운용펀드 기준입니다.
※ 기준가격 :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 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 분배금 지급 내역

(단위: 백만원, 백만좌)

구분	분배금 지급일	분배금 지급금액	분배후 수탁고	분배전 기준가격	분배후 기준가격	비고
운용펀드	2025.05.23	1,043	34,830	1,030.88	1,000.00	
종류 C-RP	2025.05.23	370	20,179	1,018.68	1,000.00	
종류 C-RPe	2025.05.23	318	14,564	1,022.34	1,000.00	

▶ 펀드 투자전략 펀드의 주요 투자 전략입니다.

이 투자신탁은 해외 주식 및 국내 채권에 전략적 자산배분을 실행합니다
-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 모투자신탁(채권), 한화코리아토탈본드증권 모투자신탁(채권) 및 한화단기국공채증권 모투자신탁(채권)에 50%이상 투자
-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40%이하 투자

1.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 모투자신탁(채권)
1) 이 투자신탁은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채권에 60% 이상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합니다.
2) 취득시 A- 등급 이상의 채권 및 A2- 등급 이상의 CP에 주로 투자합니다.
(1) 장기 안정적 운용성과 추구
- 분산투자를 통한 신용위험 축소
- 투자자산의 만기를 조절하여, 안정적 이자수익 확보
(2) 저평가 회사채에 대한 투자
- 선진화된 신용투자 프로세스와 분석기법을 활용한 높은 안정성과 상대가치를 추구
(3) 섹터별 투자비중의 조절을 통한 신축적인 장세 대응
3) 이 투자신탁은 한화자산운용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ESG 평가시스템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모든 투자과정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2. 한화코리아토탈본드증권 모투자신탁(채권)
- Kis-Reuter종합채권지수를 추종하기에 효과적인 종목 중심으로 채권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운용자의 시장전망에 따라 현물 및 파생상품을 이용하여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기타 현선물을 이용한 차익거래, Rolling Effect 등을 이용하는 등 추가적인 수익 기회를 포착하여 펀드 수익률 제고를 추구합니다.

3. 한화단기국공채증권 모투자신탁(채권)
-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국채, 지방채, 특수채 및 회사채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며, 특히 유동성이 높은 국공채에 70% 이상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합니다.
- 보유채권의 평균잔존만기를 단기로 운용하여 금리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위험을 축소합니다.
- 필요시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4.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 모투자신탁(주식)
(1)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건강관리 또는 생명공학산업(Healthcare) 등에 관련되는 외국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며 종목선정(stock picking)을 통해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글로벌 헬스케어 주식에 대한 모델 포트폴리오 및 리서치 자문 등에 대하여 'Putnam Advisory Company, LLC'의 자문을 받으며, 투자대상 종목 및 투자비율 등은 한화자산운용이 최종 결정하여 수행합니다.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른 해외투자자문업자로 자문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헬스케어 섹터
1) 바이오기술 : 바이오공학을 기반으로 인체에 보다 적합한 바이오 의약품 개발, 판매. 질병 치료나 진단에 혁신성 및 시장성에 초점
2) 제약(일반의약/특수의약제약) : 이미 승인된 의약품의 개발 또는 개선을 통해 생산 의약품 판매와 시장 개척 등 뛰어난 경영성과 달성 여부에 초점
3) 제약(대형제약회사) : 전통적인 대형 다국적 제약회사 그룹을 가리키며, 오리지날의 약품이 비중이 높고, 특히 의약품 개발과 마케팅에 강점이 있음
4) 서비스 : 병원, 건강보험회사, 회원제 건강관리 업체, 임상시험대행사 등 포함
5) 의료장비 및 공급 : 진단 및 치료 시설 및 진료 소모품 생산. 병원 장비 및 개인용 의료장비 등 포함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수익률현황

▶ 기간(누적) 수익률

펀드의 각 기간별 수익률 입니다.

(단위: %)

구분	최근3개월	최근6개월	최근9개월	최근1년	최근2년	최근3년	최근5년
운용펀드	-0.54	1.25	0.02	3.09	6.31	13.42	22.46
비교지수 대비 성과	1.46	1.42	3.04	1.93	-1.22	1.95	5.93
비교지수	-2.00	-0.17	-3.02	1.16	7.53	11.47	16.53
종류(Class)별 현황							
종류 C-RP	-0.83	0.65	-0.87	1.87	3.81	9.45	15.39
종류 C-RPe	-0.75	0.83	-0.60	2.23	4.56	10.63	17.48

※ 비교지수(벤치마크) : KAP 종합채권지수 전기간 X 40% + MSCI World Healthcare Index (T-1) X 36% + [한화자산]KIS회사채A-이상(~5Y) X 20% + MMI_CALL X 4%
※ 상기 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자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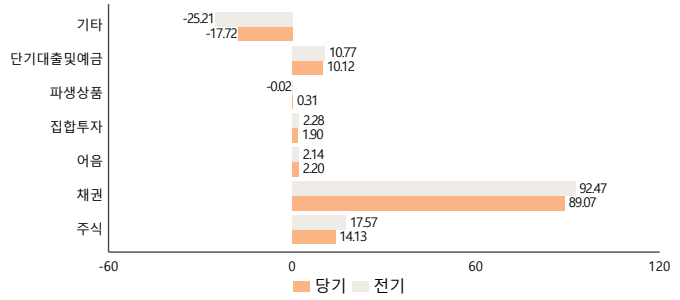
▶ 자산구성현황

펀드의 자산 구성 현황, 통화/업종/국가별 투자비중 등을 보여줍니다.
자펀드의 경우 자산구성현황은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펀드의 자산구성 내역과 해당 자펀드가 각 모펀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 등을 감안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단위: 백만원, %)

통화구분 (환율)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	기타			
BRL (244.67)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CHF (1,674.71)	516	0	0	0	0	-10	0	0	0	0	0	505
	1.48	0.00	0.00	0.00	0.00	-0.03	0.00	0.00	0.00	0.00	0.00	1.45
CNH (191.80)	0	0	0	0	0	0	0	0	0	0	0	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DKK (209.74)	112	0	0	0	0	0	0	0	0	0	0	112
	0.3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2
EUR (1,564.67)	199	0	0	0	0	-5	0	0	0	0	1	195
	0.57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56
GBP (1,854.67)	283	0	0	0	0	-9	0	0	0	0	1	275
	0.81	0.00	0.00	0.00	0.00	-0.03	0.00	0.00	0.00	0.00	0.00	0.79
JPY (9.64)	43	0	0	0	0	0	0	0	0	0	0	44
	0.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2
USD (1,381.30)	3,786	0	0	0	0	133	0	0	0	575	3	4,496
	10.83	0.00	0.00	0.00	0.00	0.38	0.00	0.00	0.00	1.64	0.01	12.86
KRW	0	31,134	767	665	-1	0	0	0	0	2,963	-6,200	29,328
	0.00	89.07	2.20	1.90	0.00	0.00	0.00	0.00	0.00	8.48	-17.74	83.90
합계	4,938	31,134	767	665	-1	109	0	0	0	3,537	-6,195	34,955
	14.13	89.07	2.20	1.90	0.00	0.31	0.00	0.00	0.00	10.12	-17.72	100.00

자산별 구성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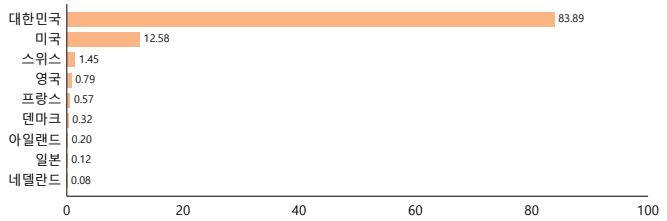


▶ 국가별 투자비중

(단위: %)

순위	국가명	비중	순위	국가명	비중
1	대한민국	83.89	6	덴마크	0.32
2	미국	12.58	7	아일랜드	0.20
3	스위스	1.45	8	일본	0.12
4	영국	0.79	9	네델란드	0.08
5	프랑스	0.57	10		

국가별 투자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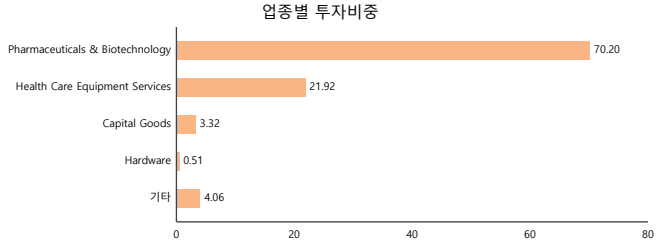
※ 펀드의 국가별 비중은 해당 증권의 발행국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국가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펀드의 발행국과 해당 피투자펀드가 실제 투자하는 국가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가별 투자비중의 비중값은 전체 국가별 자산의 평가액 합계 대비로 계산되었습니다.

▶ 업종별 투자비중

(단위: %)

순위	업종명	비중	순위	업종명	비중
1	Pharmaceuticals & Biotechnology	70.20	6		
2	Health Care Equipment Services	21.92	7		
3	Capital Goods	3.32	8		
4	Hardware	0.51	9		
5	기타	4.06	10		

업종별 투자비중



※ 위 업종구분은 한국거래소 / Bloomberg / GICS(Grobal Industry Classification Standard)의 업종구분을 따릅니다.
위 업종구분은 주식총자산 대비 비중입니다.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 비율 및 환헤지 관련 투자 내역 등을 보여줍니다.

(단위:%)

(단위:%)

환헤지란?	환헤지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 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 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펀드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 환율 하락(원화강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하락분 만큼 환평가손실이 발행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분 만큼의 환헤지이익이 발생합니다. - 환율 상승(원화약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상승분 만큼 환평가이익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분 만큼의 환헤지손실이 발행합니다.
환헤지 비용 및 환헤지로 인한 손익	환헤지를 위한 거래 비용은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선물환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환헤지 비용만을 별도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환헤지를 위한 선물환 계약의 손익은 환율의 상승/하락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원화가치 하락분/상승분을 상쇄하여 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따라서 환헤지 손익만을 별도로 계산하는 것도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투자설명서 상 목표 환헤지 비율	환헤지 가능 순자산의 70% 이상
기준일 현재 환헤지 비율(%)	93.79

※ 펀드의 설정과 해지, 보유자산의 가격변동, 환율변동 및 외환시장 등의 상황에 따라 실제 해지비율은 목표해지비율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환헤지를 위한 파생상품의 보유 현황

■ 장외파생상품

(단위: 계약, 백만원)

종목명	거래상대방	기초자산	매수/매도	만기일	계약수	평가금액
FWD KRW/USD 250725	BNY MELLON	USD	매도	2025.07.25	2,246	2,337
FWD KRW/USD 250812	BNY MELLON	USD	매도	2025.08.12	1,369	1,382
FWD KRW/USD 250527	HSBC Bank	USD	매도	2025.05.27	945	974
FWD KRW/GBP 250527	HSBC Bank	GBP	매도	2025.05.27	294	285
FWD KRW/CHF 250527	HSBC Bank	CHF	매도	2025.05.27	244	233
FWD KRW/EUR 250527	HSBC Bank	EUR	매도	2025.05.27	118	113

▶ 투자대상 상위 10 자산

(단위: %)

순위	구분	종목명	비중
1	채권	전자단기사채(모멘텀제일차 20250520-24-1(단))	3.66
2	채권	알씨아이파이낸셜132-1	3.40
3	채권	국고02750-5409(24-8)	3.22
4	채권	국고03500-3406(24-5)	3.12
5	예금	원화예금	2.44
6	단기상품	CD(KB국민 자금부 20250502-123-1)	2.40
7	채권	삼성카드2693	2.29
8	채권	신한카드2234-2	2.29
9	채권	HD현대14-3	2.28
10	채권	메리츠증권2411-4	2.28

※ 보다 상세한 투자대상자산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펀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에서 조회한 분기영업보고서 및 결산보고서는 본 자산운용보고서와 작성기준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운용사의 집합투자증권 등을 투자하는 경우 피투자펀드의 투자종목은 표기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 주요 자산 보유 현황

펀드 자산 총액 기준 상위 10개 종목, 자산총액의 5% 초과 종목 및 발행주식 총수의 1% 초과 종목의 보유내역입니다.

■ 채권

(단위: 백만원, %)

종목명	액면가액	평가금액	발행일(상환일)	보증기관	신용등급	비중
전자단기사채(모멘텀제일차 20250520-24-1(단))	1,280	1,278	2025.05.20 (2025.06.13)		A1	3.66
알씨아이파이낸셜 132-1	1,187	1,189	2025.04.28 (2026.04.28)		A+	3.40
국고 02750-5409(24-8)	1,092	1,124	2024.09.10 (2054.09.10)		R/F	3.22
국고 03500-3406(24-5)	1,014	1,089	2024.06.10 (2034.06.10)		R/F	3.12
삼성카드2693	780	802	2024.10.10 (2029.10.10)		AA+	2.29
신한카드2234-2	780	801	2024.10.10 (2029.10.10)		AA+	2.29
HD현대14-3	780	799	2024.10.25 (2029.10.25)		A+	2.28
메리츠증권2411-4	780	797	2024.11.28 (2027.11.26)		AA-	2.28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만기일)	금액	금리	발행국가	통화
예금		2013.05.23	852	2.30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현황

▶ 투자운용인력

펀드의 운용을 담당하는 펀드 매니저 정보입니다.

(단위: 개, 억원)

직위	성명	협회등록번호	
책임	왕승묵	2120000337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13	4,394	2	835
직위	성명	협회등록번호	
부책임	김홍길	2122000931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10	2,773	0	0

※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최근 3년간의 펀드 매니저 변경 내역입니다.

구분	운용전문인력	기간
책임	왕승묵	2023.04.12 ~ 현재
책임	김동한	2022.08.12 ~ 2023.04.11
책임	김종육	2021.10.13 ~ 2022.08.11
부책임	김홍길	2025.02.27 ~ 현재
부책임	황성철	2023.08.10 ~ 2025.02.26
부책임	김동한	2021.10.13 ~ 2022.08.11

※ 펀드의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함에 따라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비용현황

▶ 총보수, 비용비율

펀드에서 부담하는 총보수비용비율과 매매 및 중개수수료 비율입니다.

(단위: 연환산,%)

구분	항목	해당펀드		상위펀드 비용 합산	
		총보수 1) 비용비율	중개수수료 비율	합성총보수 비용비율	매매 중개 2) 비용비율
운용펀드	전기	0.01	0.00	0.02	0.02
	당기	0.01	0.00	0.02	0.01
종류(Class)별 보수 현황					
종류 C-RP	전기	1.19	0.00	1.21	0.02
	당기	1.19	0.00	1.21	0.01
종류 C-RPe	전기	0.83	0.00	0.85	0.02
	당기	0.83	0.00	0.85	0.01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수준을 나타냅니다. 다른 집합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총보수비용비율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는 '추정치'이며 실제보수는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 기타비용'은 알기 어려워 포함되지 않습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 모자형의 경우 모펀드에서 발생한 비용을 자펀드가 각 모펀드에 투자한 비율대로 안분하여 환산한 수치입니다.

▶ 보수 및 비용 지급 현황

이 펀드에서 부담한 보수, 기타비용, 매매 및 중개수수료 등입니다.

(단위: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1)	금액	비율1)
자산운용사		38.85	0.11	36.81	0.10
판매회사	종류 C-RP	37.50	0.18	35.86	0.18
	종류 C-RPe	13.78	0.09	12.89	0.09
펀드재산보관회사		1.81	0.01	1.71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1.99	0.01	1.88	0.01
보수합계		93.93	0.26	89.15	0.25
기타비용2)		2.05	0.01	1.91	0.01
매매, 중개 수수료	단순매매중개	1.82	0.01	1.15	0.00
	조사분석 업무 등	0.00	0.00	0.00	0.00
	합계	1.82	0.01	1.15	0.00
증권거래세		0.06	0.00	0.01	0.00

1) 비율은 펀드의 순자산 총액(기간평잔) 대비 비율입니다.
2)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한 것입니다.

■ 이 외 기타 보수 및 비용

(단위: 연환산,%)

성과보수	해당사항 없음
ESG 관련 평가 비용 등	해당사항 없음

6 투자자산매매내역

▶ 매매주식규모 및 회전율

펀드의 매매량과 금액, 매매회전율입니다.

(단위: 백만원, %)

펀드명	매수		매도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해당기간	연환산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 모투자신탁(주식)	17,363	6,187	29,381	8,921	6.75	27.67

※ 매매회전율이란 해당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해당운용기간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 최근 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

펀드의 최근 3분기 매매회전율 추이를 보여줍니다.

(단위: %)

펀드명	전전기	전기	당기
한화글로벌헬스케어증권 모투자신탁(주식)	47.91	15.79	6.75

※ 매매회전율이 높을경우 매매거래수수료 및 세금이 발생하여 실제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펀드비용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매매회전율은 펀드의 운용스타일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매매회전율이 높다고 해서 비용을 유발하는 펀드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가입하신 펀드의 스타일, 규모, 시장상황에 맞춰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7 동일[해당]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투자현황

▶ 투자현황

펀드가 한화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한 현황입니다.

(단위: 주, %)

투자대상 집합투자기구 현황		투자대상 집합투자증권 보유수(B)	보유비중 (=B/A*100(%))
집합투자기구명	발행총수(A)		
한화단기회사채증권자투자신탁(채권) 종류 C-f	15,207,839,660	902,580,992	5.93
한화 PLUS 단기채권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393,000	1,780	0.45
한화 PLUS 우량회사채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채권)	140,000	284	0.20

8 펀드 관련 주요 위험현황 및 관리방안

▶ 유동성위험 등 운용관련 주요 위험현황

■ 운용전략 특성에 따른 잠재위험요인 등

1. 주식가격 변동위험 :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반면 변동성이 큰 상장주식 등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2. 업종현황위험 : 모투자신탁은 건강관리 또는 생명공학산업(Healthcare) 등에 관련되는 외국주식에 주로 투자하므로 헬스케어 업종현황 변동에 따라 신탁재산 가치도 변동합니다. 건강관리 또는 생명공학 산업(Healthcare) 등에 관련되는 주식은 일반적인 주가(예, 미국의 나스닥지수(Nasdaq Index), 한국 코스피지수(Kospi Index) 등) 변동과는 다르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지역위험 : 모투자신탁은 외국의 주식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신흥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정지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

4. 금리변동위험 :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신용위험 :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6. 환율변동위험 : 외국 주식 등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노출됩니다. 외국 주식 등 외화표시자산은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투자신탁에서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해외자산 중 주요 통화(미국 달러,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유로화, 캐나다 달러, 오스트레일리아 달러, 홍콩 달러, 싱가포르 달러, 스위스 프랑, 스웨덴 크로나 등)로 표시되는 자산의 환율변동위험에 대해서 한국원화간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환위험을 헤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목표 환헤지 비율은 환헤지 가능 순자산의 70%이상이며 100%를 초과할 수도 있음), 기타 환헤지 수단이 없는 현지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해서는 환헤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트폴리오의 변경, 외환시장의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헤지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투자신탁은 추가형·개방형 투자신탁으로서 이러한 전략으로도 외화표시자산에 대한 환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환헤지 수단이 없는 통화의 경우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준가격 산출에 있어 외화자산과 환헤지 목적으로 투자한 파생상품의 평가반영 시점이 상이한 경우 헤지효과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이러한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환헤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7. 해외 투자자문업자 계약 해지 및 변경 위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외 투자자문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른 해외 투자자문업자로 자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환매중단 등 위험발생사유 또는 위험발생가능성 판단사유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 주요 위험관리 방안

■ 펀드의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방안 등

위험관리위원회를 통해 위험관리 기본방침 및 전략을 수립·변경하며, 『위험관리기준』을 근거로 자산별 펀드별 위험관리방안을 설정합니다. 위험관리부서는 자산별 펀드별 거래한도 및 투자한도를 관리하며 핵심 위험요인을 정의하여 포트폴리오 위험을 측정 및 관리합니다. 정기 회의체를 통해 점검결과에 대한 보고와 성과 요인분석 및 위험지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재간접펀드 등 위험관리 조치내역 및 운용사의 통제권한과 수단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 환매중단, 상환연기 등과 관련된 환매재개, 투자자금상환 등의 방안 및 절차 등

본 펀드는 펀드기준일 현재 정상적으로 환매가 가능하지만 환매중단 및 상환 연기에 대비하여 그 방안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환매 연기 또는 환매재개가 있을 경우 그 사유를 수익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관련 유관부서를 통하여 대응 방안 마련과 필요 조치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자전거래현황

■ 자전거래규모

(단위: 원)

최근3개월	최근6개월	최근9개월	최근12개월
-	-	-	-

■ 최근1년간 자전거래내역과 자전거래 사유 및 펀드간 이해상충 등 방지를 위해 실시한 방안, 절차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 주요 비상대응계획

당사는 『위험관리기준』 제17조 "우발상황에 대한 위험관리"에 의거하여 대내외 금융시장 악화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이 발생시 『한화자산운용 BCP』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 고유재산 투자 및 회수에 관한 사항

▶ 모자구조

모펀드
-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 모투자신탁(채권)
- 한화코리아토탈본드증권 모투자신탁(채권)

▶ 고유재산현황

한화자산운용의 고유 재산이 이 펀드에 투자한 현황입니다.

(단위: 백만원, %)

펀드명	분류	투자일	투자금	회수일	회수금액	투자잔액	수익률
한화코리아밸류채권증권 자투자신탁(채권) 종류 C-i	추가 투자	2025.05.14	10,000			10,000	0.17
한화코리아토탈본드증권 자투자신탁(채권) 종류 C-f	추가 투자	2025.05.14	10,000			10,000	0.03

※ 현재 투자자가 가입하고 있는 펀드 및 모펀드를 공유하는 다른 자펀드에 대한 고유재산 투자현황입니다.
※ 펀드명은 실제로 고유재산이 투자된 클래스 펀드명입니다.
※ 투자금액 및 수익률은 자산운용사의 운용전략에 따라 추가설정(환매)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금액 및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은 자산운용보고서 작성일 기준 시점의 고유투자금액(잔액)에 대한 평가 수익률로 산정하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표시됩니다.
※ 의무투자금은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위 펀드의 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경우 고유재산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은 "의무투자 종료일"을 뜻하며, 의무투자 종료가 자금의 회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